

4월 BI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전망

2024-04-25

요약

시장 예상과 달리 루피아 환율 안정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

회의 결과

불확실성 높아진 글로벌 경제, 루피아 가치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2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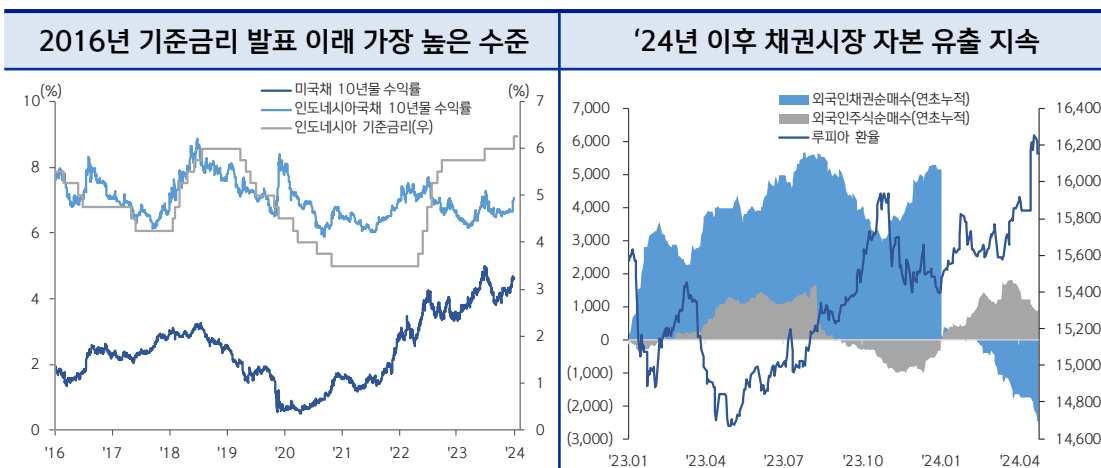
■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 및 미 연준의 피벗 지연 전망 대응위해 기준 금리 인상 결정

- 기준금리 25bp 인상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환율 변동성 억제 및 인플레이션 목표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
- 미국채 수익률과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높은 국채 수익률 제공 및 글로벌 자금 유입 촉진, 루피아 환율 안정 기대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미국 연준 피벗 예상 시기: 6월(24.03) → 12월(24.04)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부담 상쇄하기 위해, 대출 지원 정책 지속할 예정이며 6월부터 주요 섹터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할 방침
 - * 신용성장률: 10.38%(23.10) → 11.83%(24.01) → 11.28%(24.02) → 12.40%(24.03)

시사점

루피아의 가치 안정은 국내보다 국외 condition에 좌우

- 여전히 견조한 미 경제 확인 후,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 횡수 축소
 - 미국 금리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건너 뛸 수도 있다는 노컷 베팅 나오기 시작. 여전히 탄탄한 미 경기 지표로 인해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이어지는 중
-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고조되었던 지정학적 긴장감은 다소 완화
 -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중동지역 위기감 다소 약화.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
- 환율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16,000 하회까지 시간 필요
 - BI의 금리 인상이 루피아 안정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급격한 루피아 환율 상승은 대외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만큼, 외부의 부정적 상황 해소 전까지 높은 수준의 환율 유지될 듯. 이는 예외적으로 중앙은행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환율 전망치에서도 확인 가능
 - * BI의 USD/IDR 전망: 16,200(24.2Q) → 16,000(24.3Q) → 16,000(24.4Q)



자료: BI, Bloomberg, 신한은행 S&T 센터